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
		배포일시	2019. 7. 5(금) 총 4매(본문2)	
담당 부서	항공정책과 항공박물관팀	담당자	• 과장 김기대, 팀장 김희경, 사무관 서성훈	
			• ☎ (02) 2064-0175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“국립항공박물관, 대한민국 대표 비행기인 ‘T-50’ 과 ‘KC-100’ 을 품다.”

두 비행기 개발한 KAI, 항공역사 상징성 고려해 흔쾌히 기증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건립중인 ‘국립항공박물관’에 예비관람객들을 기대하게 만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.
- 국토교통부와 (주)한국항공우주산업(사장 김조원, 이하 KAI)는 ‘T-50 골든이글’과 ‘KC-100 나라온’ 두 대 비행기에 대한 박물관 기증을 결정하고, 7월 4일(목) KAI 사천공장에서 ‘기증협약식’을 가졌다.
- ‘T-50’은 KAI가 자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초음속 제트기 개발국, 세계 6번째 수출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, ‘KC-100’은 최초로 국제인증 받은 민간항공기다.
- 국토교통부는 국립항공박물관 내에 우리나라 항공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비행기 13대*를 선정하여 실물로 전시할 계획으로 이번 기증은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.

* 임시정부 비행학교 훈련기(J-1), 안창남의 비행기(금강호), 공군 첫 전투기(무스탕) 등

- ‘T-50’과 ‘KC-100’은 군수와 민수를 대표하는 국산 비행기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항공기 제작수준 등 항공강국의 역량을

보여주고자 하는 박물관에 꼭 필요한 전시물이라 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의 어명소 항공정책관은

- “이번에 기증받는 ‘T-50’은 공군 특수비행팀의 ‘블랙이글’ 디자인으로 외관을 갖추고, 직접 탑승체험도 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어서 관람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- KAI의 김조원 사장은 “우리 항공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비행기를 국립박물관에 기증해 영구히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은 KAI의 입장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다.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

□ 한편, 국립항공박물관은 김포공항에 위치하고 있으며, 항공분야 전시뿐만 아니라, 비행훈련체험, 항공레포츠체험, 항공전문 도서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.

-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.

※ 붙임: 1. 기증협약식 행사사진
2. T-50과 KC-100 참고사진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국립항공박물관추진팀 서성훈사무관(☎ 02-2064-0175), KAI 사회공헌팀장 신대식(☎ 055-851-640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

- 국토교통부 어명소 항공정책관(좌)과 (주)한국항공우주산업 김조원 사장(우)은 KAI의 사천공장에서 T-50과 KC-100의 기증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. 두 비행기는 향후 국립항공박물관의 대표 전시물이 될 예정이다.(2019.7.4.)



	기증대상	수량	크기	설명
1	T-50	1	13.13m ×9.45m ×4.94m	국내 최초 개발 초음속 고등훈련기
2	KC-100(나라온)	1	8m ×11.3m ×2.7m	미국 연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인증을 거친 최초의 국산 민항기



블랙이글(T-50B) 상하 디자인



블랙이글(T-50B) 전시 모습



고등훈련기(T-50) 디자인



전 투기(FA-50) 디자인



KC-100 비행모습



기증예정 KC-100 모습

※ 행사사진 및 고화질 사진 7.4일 15시까지 제공예정